

코로나19 극복 온정의 손길



**롯데글로벌로지스, 저소득층에 생계비 지원**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코로나19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박찬복 대표이사 등이 업무협약을 맺은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을 지난 24일 방문해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하중수 롯데글로벌로지스 상무,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최정미 롯데글로벌로지스 임직원 대표,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이현승 세이브더칠드런 대외협력부장, 최규선 롯데글로벌로지스 업무지원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백복인 KT&G 사장,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동참** KT&G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25일 밝혔다. 백복인 사장은 다음달 1일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꽃과 함께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KT&G의 생애주기별 가족케어 프로그램인 '가화만사상'을 통해 임직원 가족들에게 꽃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마련해 시행한다. /KT&G



**경남은행, 초록우산에 취약층 아동구호물품 기탁** K경남은행은 25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에 '개학연기 취약계층 아동 구호물품'을 기탁했다. 구호물품은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아동이 있는 가정에 우선 지원된다. 모두 100상자로 간편식과 생필품,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으로 구성됐다. 황윤철 경남은행장(오른쪽 두번째)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정영식 경남지역본부 후원 회장(오른쪽 세번째), 박원규 본부장(오른쪽 네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아디다스, 대구 의료진에 마스크 1만장 기부

글로벌 스포츠 리딩 기업 아디다스 코리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해 대구 지역거점병원에 N95 방역용 마스크 1만 장을 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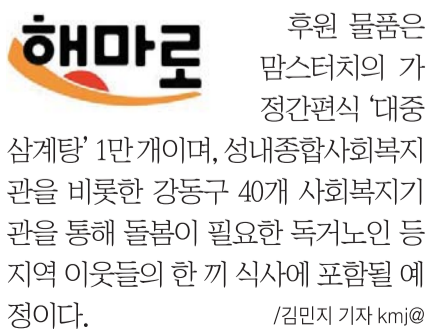


아디다스 강남브랜드센터  
마스크를 지원한다. /조호정기자 princess@

아디다스는 코로나19 감염 환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대구의료원과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의 의료진 및 방역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의료 현장에 필요한 N95 방역용

해마로푸드서비스 강동 취약층에 삼계탕 1만개 전달

해마로푸드서비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웃들을 위해 강동구청에 삼계탕 1만개를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후원 물품은 맘스터치의 가정편식 '대중삼계탕' 1만 개이며,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강동구 40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 지역 이웃들의 한 끼 식사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kmj@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됨에 따라 외부와의 단절로 인해 영양상태가 악화되기 쉬운 강동구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됐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윤 위 중 역  
잠시 심포

1532년, 5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 정도로 강성했던 잉카제국의 황제 아타우알파는 고작 168명으로 구성된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피사로에 의해 어처구니없이 무너진다. 아타우알파가 스페인 군대를 알잡아 본 결과이기도 하지만, 당시 석기시대 수준으로 무장한 잉카인들에게는 거대한 말과 고막을 울릴 정도로 커다란 소리를 내는 최신 무기 총으로 무장한 새로운 인종의 등장은 위협 그 자체였을 것이다. 이들 백인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잉카인들의 무지로 황제가 생포되고 결국 잉카제국 멸망으로 이어졌을 것이라 추측이다.

'총·군·쇠'를 집필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커다란 말과 총에 갑옷을 입은 백인들을 처음 봤더라도 거대한 잉카제국이 겨우 168명의 군대에 의해 무너졌을 리는 없다고 봤다. 그는 이에 앞서 1520년경 스페인 사람들이 잉카를 비롯한 남미대륙에 건너가 퍼뜨린 천연두를 주목했다. 이 세균이 잉카제국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인구의 95% 가량이 천연

두에 의해 희생된 것이 잉카제국 멸망의 결정적 이유라고 분석했다.

세균·바이러스는 잉카제국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위협을 가해왔다. 중세 유럽을 휩쓸던 흑사병부터 가장 최근인 1918년 5000명 가까운 인명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매번 패했다. 지금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시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의학·과학이 발달하고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 이번엔 인류가 쉽게 패배하지 않을 것 이란 점이다. 여전히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진행 중이지만 빅데이터 등을 근거로 예측할 때 5월 이전에는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이라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제는 코로나19가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염병과의 싸움에는 대비책이 마련됐는지 몰라도, 감염병이 경제에까지 충격을 주리란 점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셈이다.

과거 중세나 근대시절만 하더라도 유행병이 타 대륙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고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지 않아 국지적인 타격만 받았다. 하지만 21세기에는 대륙

에서 대륙으로 이동하는 게 하루가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밀접한 생활권이 형성돼 있다. 본사는 한국에, 공장은 중국에, 시장은 미국·유럽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제구조에서는 지구촌 어느 한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글로벌 시스템이 위협받는 새로운 시대가 구축됐다는 것 간과한 것이다.

지금 정부와 기업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00조원 가까이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무제한에 가까운 양적완화를 단행하겠다고 밝혀 죽어가던 세계 경제에 실낱 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 인류는 바이러스가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경제에까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새로운 바이러스의 공격은 계속 될 것이다. 지금의 사태가 진정되면 이를 복기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에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전세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인류는 바이러스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산업부장 yjh@metroseoul.co.kr

한국야쿠르트 경남지점 '사랑의 헌혈' 동참

Advertorial Corner

코로나19 고군분투 의료진들에 콜드브루 아메리카노 추가 지원도

한국야쿠르트가 프레시 매니저와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25일 한국야쿠르트에 따르면 경남지점 소속 직원과 프레시 매니저 60여 명은 지난 17일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 헌혈차량을 지원받아 헌혈 봉사에 나섰다.

한국야쿠르트 경남지점 직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남 지역에도 혈액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동참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직원들은 헌혈에 앞서 방역 활동을



한국야쿠르트 경남지점 소속 직원이 경남혈액원 헌혈차량에서 헌혈을 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1회용 채혈장비 사용 등 안전성 확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이번 헌혈을 통해 모은 헌혈증과 프레시 매니저로부터 추가 기부 받은 헌혈증 총 100여장은 한국 소아암 협회에 기증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야쿠르트 경남지점은 코

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 내 의료진을 위해서도 '콜드브루 아메리카노' 1000개를 추가 지원했다.

최동오 한국야쿠르트 경남지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헌혈 운동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한국야쿠르트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지역과 상생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야쿠르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회사 차원의 지원을 이어왔다. 지난 4일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억 원을 전달하고 자사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중소연구원 7대 원장에

이병헌 광운대 경영대학장



중소기업연구원 7대 원장에 이병헌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장(사진)이 선임됐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사회는 지난 24일 2020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에이클라 미디어그룹 ◇신규 선임 스타터비 대표·스포티비 방송사업부장 강명국

부음

▲정경원씨 별세, 정승기(첨단바로본의원 물리치료실 실장)씨 부친상, 박진영(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 수서위원)·문병식(대신증권 프로젝트 부문 상무)·김판섭(피델산업 대표)·이수한(전남대학교 기획조정실 팀장)씨 장인상 = 24일 오후 12시 40분, 광주광역시 광주 VIP 장례식장 201호, 발인 26일 오전 6시, 062-521-4444  
▲김정옥씨 별세, 김성후(기자협회보 편집국

장)씨 부친상 = 24일 오후 11시 45분, 전남 강진장례식장 1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061-432-4004

▲이용신(전 IBM 근무·고 권원원 전 금융투자협회장 부인)씨 별세 = 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6일 오전 10시, 02-2258-5940

▲김현임씨 별세, 김석(미래경제 대표 겸 편집인)씨 모친상 = 25일 오전 2시, 일산 동국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7일 오전 6시 40분, 031-961-9400

**배포도우미 모집**  
강남, 서초지역 근무 010-5241-6694